



9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벌어진 '제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첫날 구미전자공과 광주 동성고 경기. 2회말 동성고 최승원(오른쪽)이 좌전안타로 나가 2루까지 진루한 후 문진제 타석 때 3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 KIA 금주의 프로야구

‘우리’엔 연승 달리고 (4연승)
‘SK’엔 연패 끊어라 (7연패)

‘연승 잇고, 연패 끊어라!’
지난주 4, 5위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4승 2패를 거둔 KIA 타이거즈가 중위권 진입을 위한 원정 6연전에 나선다. 원정 상대는 최하위에 처져 있는 우리 히어로즈와 선두 독주중인 SK 와이번스다.

프로야구 주간순위 (9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38 18 0 0.679 0.0 5승
2 두산 30 24 0 0.556 7.0 2승
2 롯데 30 25 0 0.545 7.5 3패
4 삼성 31 28 0 0.525 8.5 1패
5 한화 30 29 0 0.508 9.5 2승
6 KIA 27 32 0 0.458 12.5 1승
7 LG 23 37 0 0.383 17.0 3패
8 우리 20 36 0 0.357 18.0 5패

“한국과 일본 야구와 비슷한 점이 많고, 한국 음식 등 문화가 낯설지 않아 별 어려움이 없다”고 밝힌 한국 무대적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리거’ 서재응도 SK전 연패 탈출의 중임을 맡고 마운드에 오른다.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23일간 등판하지 못했던 서재응은 지난 8일 복귀전에서 6이닝 동안 2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방망이도 괜찮다.
KIA는 지난 4, 5일 이를 연속 만루 홈런을 기록하는 등 3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등 장성호·이재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에 힘이 실렸다. 발 빠른 이영규·이종범·김원섭은 3할이 넘는 타율로 막강 테이퍼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 니혼햄에서 뛰고 있던 디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 광고 선발 문병승 있음에... 16강 안착

‘충북 명문’ 세광고가 대통령배 준우승 팀 경기고를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

세광고는 9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15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 경기 고와의 개막전에서 선발 문병승의 안정된 피칭을 앞세워 6-2로 승리했다.

공주고는 상대의 실책으로 손쉽게 선취점을 뽑으면서 전주고를 4-3으로 힘겹게 따돌렸고, 동성고는 구미전자공과의 팽팽한 대결을 펼친 끝에 3-1로 이겨 16강에 합류했다.

세광고 6-2 경기고

안타수는 8-6으로 경기고가 앞섰지만, 사사구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했다.

3회초 세광고의 선두타자 남승현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김선기와 임한규가 볼넷을 얻어내면서 1사 만루가 됐다. 앞선 1·2회 4개의 사사구를 기록했던 경기고 선발 오한새는 만루의 위기에서 또 다시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밀어내기 2점을 내주는 등 3과 3분의 1이닝동안 1피안타 9사사구로 4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충청명문 경기고를 풀어나가지 못하던 경기고는 6회 선두타자 이남용이 내야안타로 출루하면서 반격 기회를 잡았으나, 2번 오지환의 2루타성 타구가 우익수 임한규의 글러브에 빨려들어가면서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까지



대회 첫날

경기 상대 6이닝 무실점 패투
공주고·동성고도 2회전 합류

아웃했다.
경기고는 7회 김민준과 이남용의 적시타로 2점을 추격하는 데 그쳐 결국 6-2로 패했다. 대형 유격수로 관심을 끈 LG 1차 지명의 오지환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면서 팀 승리를 이끄는 데 실패했다. 세광고 선발 문병승은 6이닝동안 4피안타 2사사구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제 15회 무등기의 첫 승리투수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

전주고 3-4 공주고

공주고는 개막전에 이어 벌어진 전주고와의 경기에서 마운드의 우위로 4-3으로 승리했다.

3회 공주고의 선두타자 김찬호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장익호의 안타로 무사 1·2루의 위기에서 투수 오성균이 3번타자 김철중의 땅볼을 놓치는 바람에 무사 만루가 됐다. 4번타자 최동욱의 내야안타로 1점을 먼저 뽑은 공주고는 유환선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며 3-0으로 앞서 나갔다. 3회 타

점을 기록했던 최동욱과 유환선은 5회 2루타와 내야안타로 1점을 합작하며 점수는 4-0이 됐다.
상대의 실책으로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던 공주고는 4-1로 앞서나간 8회 2루수 오윤석의 실책 때문에 2점을 내주며 역전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공주고 투수 박정준은 2사 1·3루의 계속된 위기에서 최진호를 땅볼로 요리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공주고 선발 조득주는 6과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으로 호투하며 팀의 16강을 견인했다.

구미전자공 1-3 동성고

동성고는 구미 전자공과 투수전을 벌인 끝에 3-1로 신승했다.

2회말 동성고는 5번타자 최승원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빠른 발과 희생타를 묶어 먼저 선취점을 올렸다. 1점차의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던 동성고는 6회초 남성렬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1-1동점을 허용했으나

■오늘의 무등기 야구

1회전
상원고-덕수고(10시)
강릉고-부천고(12시30분)
진흥고-장충고(3시)

■내일의 무등기 야구

16강
취문고-유신고(10시)
동산고-세광고(12시30분)
마산고-공주고(3시)
부경고-동성고(5시30분)

이어진 6회말 1사 만루에서 송단비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밀어내기로 다시 2-1로 리드했다.

7회초 동성고는 선두타자 김봉규에게 3루타를 허용하면서 무사 3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위기를 넘긴 후, 8회말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만들어진 1사 1·3루의 찬스에서 최승원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 승부에 마침점을 찍었다.

구미 전자공의 선발 서성민은 8이닝동안 4피안타 4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팀 타선의 불발로 패전 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청소년야구대표 18명 확정

광주일고 정성철·허경민·동성고 임익현 포함

대한야구협회가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을 9일 확정했다.

사령탑은 이종은 경남고 감독이 임명됐고 강길용 경기고 감독·정윤진 덕수고 감독이 코치로 선임됐다. 선수단은 프로야구 KIA와 두산에 1차 지명된 정성철(광주일고)·성영훈(덕수고)등 투수 7명, 포수 2명, 내야수 6명, 외야수 3명 등 총 18명으로 이뤄졌다. 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호주, 러시아와 함께 A조에 편성된 대표팀은

7월26일 멕시코와 첫 경기를 치른다.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명단
▲투수(7명) = 정성철(광주일고) 오병일(부산고) 장영석(부천고) 성영훈(덕수고) 박민규(경남고) 허준희(취문고) 홍영현(배명고) ▲포수(2명) = 김재우(취문고) 김재민(경남고) ▲내야수(6명) = 오지환(경기고) 김상수(경북고) 안지홍(서울고) 임익현(동성고) 허경민(광주일고) 정주현(대구고) ▲외야수(3명) = 박건우(서울고) 정수빈(유신고) 류기훈(제물포고)

“우리는 야구 三父子”

문성록 前 해태투수 두 아들
선재·진제 동성고 대표 출전

제15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가 개막된 9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

이날 세번째 경기인 광주 동성고와 구미전자공과의 1회전 경기. 동성고 라인업에는 3번타자 문진제(3년·유격수)와 7번타자 문진제(2년·지명타) 형제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눈길을 끌었다.

더구나 이들 형제의 아버지는 문성록(49·사업), 광주상고(현 동성고)투수 출신으로 KIA 전신인 해태타이거즈에서 투수로 3년간 활약하다 은퇴, 90년~2003년까지 프런트로 근무한 ‘학교 선배이자 야구 대선배’다.

선재·진제형제는 각각 서림초등학교 4학년과 3학년말 야구에 입문했다. 아버지를 따라 해태경기를 자주 보러 다니다 자연스럽게 글러브를 끼게 된 것.

이들 형제는 지난 2002년 이종범(38·KIA타이거즈)선수 이후 21년만에 협회장기 야구대회에서 서림초등학교가 우승할 때 5개월을 번갈아 투수로 활약하며 팀을 우승시킨 진기록을 작성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동성중을 거쳐 동성고에 나란히 진학한 선재는 2학년때까지 2루수를 맡았으나 올해부터 유격수로 전향했고, 동생 진제도 유격수와 2루수등 전선후 내야수로 활약하고 있다.

키 184cm, 몸무게 78kg의 선재가 동생 진제(182cm,76kg)보다 약간 크고 체중도 더 많이 나간다. 서로 자신이 더 낫다고 이야기 하지만 야구 실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



광주 동성고의 형제선수 문진제(사진 왼쪽·3년)·문진제(2년)군이 경기기 끝난 후 아버지 문성록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
아직은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프로구단에 입단할 것인지 진로를 정하지 않았지만 대학보다는 프로에 몸 담고 싶은 것이 이들 형제의 바람이다.

이날 경기장에서 두 아들의 활약을 지켜보던 문성록씨는 “선재가 최근 청소년대표에 뽑히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대회에서 팀을 우승시키는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성고 최승원...2타수 2안타 1타점



“주자를 불러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팀배팅을 했습니다. 팀의 우승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동성고의 5번타자 최승원(3년·외야수)이 9일 구미 전자공과의 1회전에서 2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최승원은 2회 중전안타로 출루하면서 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희생 땅볼로 2루까지 진루한 최승원은 도루에 성공하면서 3루를 훔쳤고, 문진제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으면서 팀의 첫 득점을 기록했다. 빠른 발로 1점을 만든 최승원은 4회에도 내야 안타로 출루하면서 기동력을 과시했다. 6회 고의사구로 세 번째 타석에서도 진루에 성공한 최승원은 2-1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던 8회에는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리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최승원은 경기가 끝난 후 “팀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힘든 경기를 펼쳤다”며 “팀 승리에 기여를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173cm의 키에 68kg인 최승원은 빠른 발과 제치 있는 플레이가 장점으로 고려대와 연세대 등 야구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적당히 다 잘하는 선수 필요없다”

■ 인터뷰

염경엽 프로야구 LG스카우터



도자의 기회가 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야구를 해야 합니다.”
9일부터 시작된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은 염경엽(40) 프로야구 LG스카우터가 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다.

염 스카우터는 광주출신으로 광주 서석초등학교-광주일고-고려대를 거쳐 프로야구 현대에서 유격수로 활약했다. 지난 2000년 은퇴 후 수비코치, 외국인 선수 스카우터와 운영팀장을 지냈고, 올해부터 프로야구 LG 용병담당 스카우터를 맡고 있다.

염 스카우터는 “현장을 떠나 스카우터를 하면서 야구를 더 넓고 크게 보게 됐다”며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지

수 정성철(3년)과 내야수 허경민(3년)을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염 스카우터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몸에 맞는 야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신의 체형과 특징을 잘 파악해서 빠른 발을 이용할 것인지, 파워배팅을 할 것인지, 수비에 치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는 “스카우터는 모든 것을 적당히 잘하는 선수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 특징있는 선수에 시선을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야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